휘발유 보다 비싼 경유…화물차 운전자 뿔났다

"유류세 인하로 보조금 줄었는데 주유소 가격 그대로"
5~7월 한시 적용 '유가 연동 보조금'도 여전히 부족
정부, 보조금 지급 방식 바꾼 추가 지급안 이번주 발표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고 있다.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화물차 등 생계형 사업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5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의 평균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속속 뛰어넘고 있다.

이날 광주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48.67원으로 경유 가격은 1944.02원이다.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이는 불과 4.65원이다.

실제 지난 14일 기준 광주지역 주유소 총 258곳 중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주유소는 93곳(36.0%)으로 집계됐다. 둘의 가격이 같은 곳은 48곳(18.6%)으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거나 같은 주유소는 전체의 절반(54.6%·141곳)이 넘는다. 조만간 광주 주유소들의 평균 경윳값이 휘발유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남지역은 지난 12일부터 평균 판매 경윳값이 휘발유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날 현재 전남지역 평균 경유 가격은 1964.18원으로 1957.72원인 휘발유보다 6.46원이나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4일 기준 경유와 휘발유를 모두 판매하는 전남지역 주유소 831곳 중 경유가 더 비싼 곳은 475곳(57.2%)에 달해 절반을 뛰어넘었고, 둘의 가격이 같은 곳도 126곳(15.2%)이나 됐다.

전남 주유소 10곳 중 7곳 이상(72.3%·601곳)이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거나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앞지르면서 경유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물론, 화물차와 버스 등 생계형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의 대형 화물차 운전자 A씨는 "25t 대형 트럭에 들어가는 경유가 한 달에 3000ℓ 안팎이다"며 "작년에 비해 최근 주유비만 매달 200만원은 더 들어가는 탓에 차라리 운행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하는 기사들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도 줄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2001년 유류세 인상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보조금인 탓에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유류세를 인하하면 정부의 보조금은 즉각 깎이는 것과 달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유류가격은 유류세 인하 폭에 미치지 않는 데다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기까지 시일도 소요된다. 더구나 경유 가격이 단기간 내 급등하면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유가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메워 주는 것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생계형 운전자들의 설명이다.

화물차 사업자들은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이나 20% 인하 때 수준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운송사업자 경유가격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궁극적으로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쉽게 운송사업자들이 경유를 살 때 더 많은 보조금을 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 1분기 영업손실 8조 육박 '역대 최대'

"적자 지속 땐 자산 매각 등 비상경영체제로"

한국전력이 유가 급등 영향으로 올해 1분기 8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 영업손실을 냈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들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무 개선을 위해 부동산 등 자산 매각에 나서는 등 비상경영체제를 확대한다.

한전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7조786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영업이익 5656억원)와 비교해 적자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다.

매출은 16조46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 순손실은 5조9259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영업손실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한해 적자액 5조8601억원보다도 2조원 가까이 많은 것이다.

연료비(7조6484억원)와 전력구입비(10만5827억원)가 각각 92.8%, 111.7% 급증한 것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배경이다.

전력 판매 수익은 15조3784억원으로 7.6%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전은 전력구매 비용이 영업비용의 85% 이상을 차지하는데 LNG·석탄 등 연료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사들인 전력 구매비용도 대폭 올랐다.

한전은 유가 변동에 따라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으나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비용 부담을 떠안았다.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전 자회사들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무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보유 중인 출자 지분 중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분 외에는 매각하고 보유 부동산도 매각 가능한 것은 매각한다는 원칙하에 관련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전은 경영 혁신도 단행해 디지털화와 비대면 경향을 반영한 인력 재배치에 나서고 전력 데이터·플랫폼을 개방해 민간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연료비 등 원가 변동분이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는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중기 지원 '빛났다'

금감원 '관계형금융' 우수은행 선정…저신용자 대출비중 등

광주은행이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을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이 선정하는 '관계형금융' 우수은행에 선정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관계형금융 우수은행' 중소형그룹 부문에서 광주은행이 1위를 차지했다고 최근 밝혔다.

관계형금융은 은행이 중소기업의 계량·비계량 정보를 종합평가해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도 사업전망 등이 양호한 경우 3년 이상의 대출·지분투자 및 경영자문 등을 제공하는 걸 말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업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국내은행 17곳이 동참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업무협약 체결건수와 저신용자 대출비중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위에 선정됐다. 1위에 선정되면 금감원 홈페이지에 우수은행으로 게시된다.

중소형 은행으로는 광주은행과 부산, 대구, 경남, 전북, 제주, 수협, 씨티, SC, 수출입은행 등 10개 은행이 분류됐다.

광주은행은 지역 중소기업과 거래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대출신청에 적극 반영하고, 고객과의 끈끈한 유대관계 속에 업무협약 체결과 금융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한 예로 광주첨단산업단지에 있는 ㈜와이비지테크는 우수한 기술력을 지녔지만 수주량 급증에 따라 원재료 구입 부담이 커지면서 광주은행 문을 두드렸다.

신설법인이다 보니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해 전반적인 대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광주은행은 업체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관계형금융 협약을 맺어 자금을 지원했다.

대출 이후 이 업체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자 광주은행은 보증서 발급 등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광주은행과 관계형금융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주기적으로 시설자금 및 저리의 정책자금을 소개받고 있다.

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명감을 가지고 진심을 담은 금융상담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금융지원 및 경영컨설팅을 진행해 적기에 자금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실시한 자체 금융지원은 지난달 말 기준 2만9696건, 1조3368억원에 이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중기 10곳 중 4곳 "원자재값 상승 납품단가에 반영 안돼"

"단가 조정 가능 사실 몰라" 54.6%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철강류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중소 협력업체 10곳 중 4곳은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를 전혀 올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전문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서면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 업체 2만여곳 가운데 401개 업체가 설문에 참여했다.

응답 업체의 42.4%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원사업자와 분담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가 모두 떠안았다는 의미다.

특히 건설업종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높게 나타났다.

전 업종을 통틀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57.6%였다. 반영 비율은 10% 미만(24.7%)이 가장 많았고, 이어 10% 이상(20.7%), 50% 이상(12.2%), 전부 반영(6.2%) 등의 순이었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급원가 변동이 있을 땐 수급사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어도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협력업체가 54.6%였고 조합이 협상을 대행해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업체는 76.6%에 달했다.

조정을 신청해본 업체는 39.7%였다. 이 가운데 91.8%는 업체가 직접 요청을 요청했고, 8.2%는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들은 '거래단절 또는 경쟁사로 물량 전환 우려'(40.5%), '요청해도 원사업자가 거절할 것 같아서'(34.2%), '법적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19.0%), '이미 조정됐거나 조정 예정이라서'(13.1%) 등을 이유로 꼽았다.

/연합뉴스

성년의 날, 향기를 선물하세요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본관 2층 프랑스 향수 브랜드 '딥디크' 매장에서 '성년의 날'(16일)과 '부부의 날'(21일)을 앞두고 인기 선물로 꼽히는 향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전남 단체장 후보에 '중기 정책과제' 전달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는 지난 13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광주전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민선8기 지역경제 발전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종별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총 24개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핵심과제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조례제정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구매제도 활용 및 지역제품 구매공시제 도입 ▲여수오천산단 특산물공동전시판매장 건립 지원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등이다.

임경준 회장은 "원자재 가격 폭등과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번에 전달한 정책과제들이 꼭 민선8기 경제발전 공약에 반영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

비트코인 '바닥' 인가…3900만원대 보합

한때 시가총액 10위권에 들었던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가 전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3900만원대에서 보합세를 보이며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

15일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3955만9000원으로, 24시간 전보다 0.13% 올랐다. 같은 시간 빗썸에서도 0.68% 오른 3948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1일 하락하며 9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4000만원선 아래로 내려갔으며, 루나·테라 급락 사태가 가시화한 지난 12일에는 3700만원(업비트 기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국내외에서 10만원대에 거래됐던 루나는 99% 이상 폭락하며 13일 한때 1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국내 거래소와 일부 해외 거래소는 루나를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1015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4	23	31	33	37	40	44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051,105,610	8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39,883,734	102
3	5개 숫자일치	1,412,549	2,880
4	4개 숫자일치	50,000	144,321
5	3개 숫자일치	5,000	2,304,033